사찰청년회 네트워크로 불교 미래 다진다

대불청 미래세대委, 하반기 청년불자 결집 목표

2030 프로그램 기획 등
눈높이 맞춘 접근 통해
흩어진 청년불심 모은다
종단과 시너지 효과 기대



대불청은 203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자 기존 행사 중 청년들에게 호응이 높았던 것을 선별할 계획이다. 사진은 대불청과 한국불교문화사업단이 청년불자 육성 프로젝트로 2013년 기획한 통통콘서트. **현대불교 자료사진**

종교인구 감소와 젊은 세대 이탈이 두드러지는 한국불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대한불교청년회가 올 하반기부터 사찰청년회 네트워크를 통한 청년불자 결집에 나선다. 이에 따라 오는 8월 30일 출범하는 조계종 백년대계본부 산하 미래세대위원회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대한불교청년회 산하 미래세대위원회(위원장 장재열)는 최근 내부진단을 통해 하반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전국 각지서 개별적으로 활동하는 사찰청년회들을 연결하기 위한 네트워크 조직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불청은 현재 구성원 대부분이 과거 청년세대인 데다 젊은 불자의 부족으로 미래가 불투명하다는 문제인식을 갖고 △사찰청년회 네트워크 조직 △지구단위 청년불자 유입경로 확보 △2030세대 위한 프로그램 마련 △자유로운 신행활동 장려 등 4가지 주제의 계획을 세웠다.

대불청이 사찰청년회 네트워크 조직을 핵심사업으로 정한 가장 큰 이유는 사찰청년회 임원들간 교류 욕구를 확인했기 때문이다. 이는 BTN불교라디오 '울림'서 방송을 진행하는 장재열 위원장이 패널로 참가하는 사찰청년회장들과 만나며 알 수 있었다. 특히 조계사와 봉은사 청년회가 교류하면서 서로 행사를 지원하고, 친밀도가 높아지는 유의미한 사례도 파악됐다. 이에 대불청 미래세대위는 수도권부터 시범적으로 네트워킹 욕구가 있는 사찰청년회장들을 위한 교류의 장을 마련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장재열 위원장은 "많은 사찰청년회장들이 다른 청년회는 어떻게 활동하고, 회장으로서의 고민을 어떤 방식으로 풀어내는지 관심이 크다. 대불청은 이들을 만나게 해주는 소위 '마담 뚜' 역할을 해야 한다"며 "불청대회 같은 공식행사를 벗어나 젊은 세대가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 청년불자들을 하나로 묶어내는 게 한국불교 발전의 밑거름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사업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대불청은 청년불자 유입경로 확보를 위해 광역시·도별 지구에 20~30대 미래세대위원들을 두고, 지방서 불교 접근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과의 연결고리를 만들 계획이다. 이는 또래의 불자가 없어 이탈하는 청년이 발생하는 농어촌 불교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대불청은 전망하고 있다. 미래세대위원들은 각 지역에서 젊은 세대 눈높이에 맞춘 접근방법을 모색하고, 추후 인원 유입에 따라 그룹단위로 활동한다.

또한 2030세대를 위한 프로그램은 기존 대불청이 실시한 다양한 행사 중 청년불자들의 호응이 높았던 것을 선별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할 예정이다. 과거 청년불자이기에 참여자격이 주어졌다면 앞으로는 프로그램을 통해 청년불자가 될 수 있도록 장려한다는 것이다. 대불청에 따르면 남북통일을 주제로 한 '통일열차'와 만해 스님 유택인 심우장서 캘리그라피를 배우는 '생생문화재', 카라반 20여동을 빌려 실시한 '글램핑 송년법회' 등이 청년불자 프로그램으로 꼽힌다. 이외에도 자유로운 신행활동 장려를 위해 일원화된 법회서 벗어나 청년불자들이 각자 원하는 방식으로 신행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의견을 청취한다.

김성권 대불청 중앙회장은 "사업이 탄력을 받기 시작하면 종단 미래세대위원회와 시너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종단이 불교의 사회적 역할 등 거시적인 관점서 접근한다면 대불청은 일선 현장서 미래불자를 양성해내는 일을 담당하게 될 것"이라며 "이번 기회를 통해 흩어져 있는 청년불자들이 규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호섭 기자 sonic027@hyunbul.com

'막말파문' 금강대 총장 자진 사퇴

7월 28일 서울 관문사서 열린 금강대 제89차 이사회서

한광수 금강대 총장이 7월 28일 서울 관문사에서 열린 제89차 이사회서 자진 사퇴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사회에는 재적이사 15명 중 9명이 참석했다.

이사장인 천태종 종정 도용 스님의 불참으로 회의를 주재한 부이사장 춘광 스님은 이사회 직후 "한광수 총장이 자진사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원회 구성 등 안건은 다뤄지지 않았고, 현 상황 수습을 위한 대책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이날 참석한 재가이사 전원이 사의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재가이사로는 이봉춘·홍승기·조창희·최방길 이사 등 4명이 참석했다. 사표 수리 등 공식절차는 8월 11일 열리는 이사회서 진행된다.

당초 오후 1시에 예정된 이사회는 1시간 늦춰진 2시경 시작됐다. 이사회 전 이사들이 모여 인사를 나눈다는 명목이었지만 이 자리서 몇몇 이사들이 이번 사태에 대해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법인 측은 언론보도 내용과 노조 측 주장에 대한 해명자료를 마련했지만 결국 총장 자진사퇴로 금강대 사태는 일단락됐다.

한편 금강대는 학교규정에 따라 당분간 김창남 교무지원처장이 총장 직무를 대행한다. 또 최근 금강대 법인사무처장이 교체된 만큼 낮아진 학교 위상을 끌어올릴 방안을 모색할 것으로 전망된다.

윤호섭 기자



文 대통령, 오대산 상원사서 시민들과 '찰칵' 7월 30일~8월 5일 6박7일간의 여름휴가를 떠난 문재인 대통령이 2일차인 31일, 오대산 상원사를 찾았다. 문 대통령은 가랑비에 옷이 흠뻑 젖고 송골송골 땀이 맺혔지만, 시민들과 셀카를 찍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문 대통령은 개최 6개월 앞으로 다가온 평창 동계올림픽 홍보를 위해 평창을 첫 휴가지로 택한 것으로 알려진다.

박아름 기자 · 사진출처=청와대 공식 페이스북



정찬주 작가의 스님이야기 ④ 파리에 대하여

박쥐와 동거… 자연 이치 깨닫다

제목만 보면 오해를 할 수도 있겠다. 프랑스 파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짐작하는 이가 있을지 모르니 말이다. 그러나 나는 예술의 도시 파리를 얘기하려는 것이 아니다. 여름철만 되면 극성을 부리는 집 안의 불청객 파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한다. 아마도 파리를 좋아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 특히 음식에 붙어 있는 파리는 혐오감 내지는 적대감이 든다. 너석이 음식에 붙어 먼저 맛보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실제로 파리가 음식을 훔쳐간 일은 없을 터. 파리가 음식에 붙는 까닭은 눈곱만큼이라도 좀 나눠먹자는 너석의 배짱이 아닐까.

사람들은 파리를 보면 유독 적의를 드러낸다. 파리채를 휘두르는 것도 모자라 파리에게 치명적인 살충제를 뿌린다. 이처럼 잔인한 가해자인 사람이 어찌 두렵지 않겠는가. 파리는 사람만 보면 지레 '용서해 주세요' '세상은 사람만 사는 세상이 아니에요'라고 말하듯 앞다리를 내밀고는 싹싹 빈다. 그런데 파리가 앞다리를 비비는 것은 잔털에 묻은 이물질을 털어 앞다리의 빨판으로 먹이를 잘 빨고, 냄새를 맡기 위해서라고 한다. 동정심이 싹 가시는 파리지만 그래도 앞다리를 들고 비는 모습을 보고 있는 동안은 왠지 마음이 약해지기 마련이다.

법정 스님도 깔끔한 성격 때문에 젊은 시절에는 방 안에 파리가 날아다니는 꼴을 보지 못했지만 연세가 드신 뒤부터는 앞다리를 들어 비는 파리를 어쩌지 못하겠더라고 얘기하며 웃으셨다. 그 말씀 끝에 나는 내 얘기를 덧붙였다. 한때는 인정사정없이 파리를 잡았지만 산중으로 내려와 살다 보니 미물이라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다. 사실 내 산방 터는 원래 파리와 같은 곤충, 벌레들이 살던 곳이었으니 나는 그들의 주거지를 빼앗은 무단침입자일 수도 있었다. 산방을 지은 지 한두 해 동안 나는 모기와 파리는 물론이고 뱀과 지네 등이 출현하여 애를 먹었다. 집개로 지네를 집어 산방 밖으로 보내주는 일은 지금도 반복하고 있다.



일러스트 · 정윤경

나는 파리를 퇴치하되 살생하지 않는 방법을 터득했다. 파리채로 살짝 충격을 주면 파리가 기절한다는 것을 알고 살려주었던 것이다. 그런데 어느 해부터인가는 파리와 모기가 방안에서 저절로 사라졌다. 나는 그 이유를 우연히 알았다. 박쥐가 산방의 환기구로 들어와 살면서 파리와 모기를 끼니거리로 삼았던 것이다.

물론 그날 이후 산방에서는 살충제가 필요 없게 되었다. 그렇다고 박쥐와의 동거가 좋기만 한 것은 아니었다. 어린 박쥐가 밤중에 머리맡에 떨어져 잠을 깬 적도 있었던 것이다. 안사람은 기겁을 했지만 어린 박쥐를 보니 귀엽다는 생각도 들었다. 어린 박쥐 등을 만져보니 찹살모찌처럼 감촉이 말랑말랑 부드러웠다.

올해는 겨울잠에서 깬 박쥐가 늦게 돌아온 것 같다. 보름 전쯤 아침에 일어나 보니 마루에 검은 쌀알 같은 박쥐 똥이 떨어져 있었던 것이다. 박쥐가 돌아와 활동하고 있다는 방증이다. 파리에게는 몹시 불운한 일이지만.

"박찬주 부인 갑질, 헌법·법률 위배"

공관병에 종교행사 강요 의혹… 시민사회 비난 '봇물'

박찬주 육군 제2작전사령관(대장) 부인이 공관병에게 자신의 종교행사 동반을 강요하는 등 '갑질'을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군인권센터(소장 임태훈)가 8월 2일 배포한 자료에 따르면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박 대장의 부인은 일요일이면 불자인 병사를 강제로 교회로 데려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뿐만 아니라 이들 부부는 공관병에게 호출용 전자팔찌를 채우고 수시로 심부름을 시키거나 아들의 간식을 챙기라고 하는 등 도 넘은 인권침해 행위를 일삼았다고 전해진다. 특히 박 대장이 육군참모총장으로 재임하던 2015년 한 공관병이 이들 부부의 갑질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알려져 더욱 큰 충격을 줬다.

불교계에서도 군인의 종교 자유 및 인권이 침해된 이번 사태에 대해 즉각 우려와 지탄의 목소리를 냈다.

종교자유정책연구원(원장 류상태)은 8월 3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사령관의 처는 일요일이면 공관병 및 조리병을 교회에 데려갔다. 불자도 있었으나 별수 없이 교회를 따라갔다고 한다"면서 "공직자로서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부적절한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종자연은 이번 사태가 박 대장의 문제만이 아닐 것임을 시사하며 "인권친화적 환경의 군대 문화로 가꿔 가야한다. 또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인권교육을 통해 군 고위 간부들의 인권의식을 향상시켜야한다"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pak502482@hyunbul.com

불기2561 단기4350년

기(氣)에너지가 넘치는 호신불 달마시계!!

부부화합, 건강, 명예, 재물, 합격, 사업의 번창을 기원하는 만사형통의 상징입니다.



2017년 정유년을 맞아
불자님들께 성불하시라고
특별한 가격으로 모십니다!

옴 마니 반메 훔 호신불 달마시계

기(氣) 심령연구가 정음스님
www.kgf21.kr

옴은 우주, 마니는 지혜 반메는 자비를 뜻하며 훔은 마음을 의미한다

부처님의 대비는 사람의 필요에 따라 일어난다
이 시계를 착용한 사람은 모든 팔란이 소멸될 것이다.

부처님의 의미는 첫째는 지대한 관심과 둘째는 확신과 의욕이며 셋째는 성취와 깨달음이 담겨있어야 한다. 부처님과 합일하려면 자신과 중생의 괴로움을 구제하기 위해 끊임없이 정진해야 한다.

옴마니반메훔은 모든 번뇌와 죄악은 소멸되고
지혜와 바른 공덕을 갖추게 된다는 의미.





호신불 시계(1개) : 138,000원
(남녀셋트(2개) : 238,000원)

시계구입 불자님들께
큰스님께서 축원기도 올려 드립니다.

(제조사 : 오리엔트)

- IPG 24K공법으로 완성된 케이스
- 세미 사파이어 크리스탈 글라스
- 최상의 금도금 24각 커팅 베젤 스타일
- 최고급 사각보석 12개 문자판에 식입
- 최고급 JAPAN 무브먼트
- 3기압방수, 3ATM
- 최고급 보석 용두
- 문자판 내부에 부처님상 양각화
- 스테인레스 스틸 메탈밴드



호신불 벽시계(고급비단표구액자)
가로 : 29.5cm 세로 : 59cm 두께 : 4.5cm
천가지 재난이 눈녹듯이 사라지고
만가지 복이 구름일듯이 일어난다.

호신불 벽시계 : 180,000원

큰스님을 모시고 시계점안식 장면



일체의 번뇌를 소멸할 수 있는 옴의 형상과 부처님 상을 양각하여 부처님의 법력으로 만사형통하는 간절한 바램으로 불전에 큰스님을 모시고 점안식을 거행하여 모든 분들께 안전과 평화를 기원하며 또한 삼재팔란 액운을 소멸하여 사업, 운전, 건강, 취직, 학업의 성취를 이루도록 축원하여 드립니다.

호신불 달마 시계는 이런 분들께 추천합니다

- 사업번창을 원하시는 분
- 가정에 평안을 발원하시는 분
- 육신에 병고가 찾아와 기운이 없으신 분
- 마음이 어지러워 꿈자리가 뒤숭숭 하신 분
- 수험생 자녀가 계신 분

사단법인 한국불교 전통문화 포교회
등록번호 : 017-05-01

추천 : 사단법인 대한불교종단총연합회
문화관광부 법인설립허가 제 6 호

상담문의 1588-4164

입금계좌 (농협) 351-0949-7000-63 예금주: 불교조계종관음사